

# 지상천국건설 - 세계개벽에 대한 이해

鄭大珍\*

目次	
I. 머리말	3. 후천선경으로서의 지상천국
II. 대순진리와 지상천국건설 (세계개벽)	III.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의 의의
1. 천지공사와 지상천국건설	1. 천지공사의 완결
2. 정신개벽과 인간개조를 통한 세계개벽	2. 인존시대의 도래
	3. 대순종지의 실현
	IV. 맺음말

## I. 머리말

대순진리회에서 확립하고 있는 종교적 이념은 지금으로부터 132년 전에 이 땅에 강세하신 구천상제의 역사에서 비롯된다. 상제께서는 신통자재로 구애됨이 없이 40년간 유일무이한 진리를 인세(人世)에 선포하시면서, 대공사를 통하여 만고에 쌓인 모든 원울(冤鬱)을 풀고 세계가 상극이 없는 도화낙원을 이루게끔 하셨다. 이러한 대역사에 근거하여 상제의 대순하신 유지(遺志)를 계승한 조정산 도주께서는 50년간의 공부종필로써 수행을 위한 모든 교리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도주의 종통을 계승하여 괄목할 만한 현대의 종단으로 발전시킨 박우당 도전께서는 화천(化天)하기까지 도주의 유법(遺法)을 숭신(崇信)하면서 오늘날의 종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수도의 지침을 마련하였다.

오늘날 대순진리를 신앙하고 실천하는 수도인은 이상과 같은 연원에 의지

---

\*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교문

하면서 진리를 심화하고 선양해 나가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그만큼 대순진리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증명하는 것은 신앙인의 실천하는 모습을 떠나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순진리를 참되게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참된 자각이다. 나 자신이 진리를 참되게 자각하지 않고서는 참된 실천을 기대할 수 없다. 강력한 실천을 뒷받침 하는 것이 바로 이론이며, 이는 곧 대순진리의 실천을 위해서는 그 교리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논고(論考)에서는 대순진리가 표방하고 있는 교리 체계 전반을 고찰하였다. 크게는 종지와 신조, 목적으로 이루어진 체계에 있어서 하나 하나의 항목이 의미하는 바를 필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설명한 바 있다. 비록 미약하지만 종지와 신조 목적에서 제시된 개념을 『전경』과 『대순지침』, 『대순진리회요람』을 참고로 하여 그 해석을 시도하였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최종적인 주제로서 목적에서 제시된 세 번째 항목에 관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대순진리의 목적에는 무자기-정신개벽, 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이 있다. 이 가운데 앞의 두 가지는 선행된 논고를 통하여 이미 밝힌 바가 있으며, 세 번째 항목인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에 대하여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적에서 제시된 세 번째 항목은 이전의 개념과 비교하여 보다 거시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왜냐하면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일 수 밖에 없는데 단계적으로 세분하여 세 가지로 나뉘어짐을 보였으므로 그 세 번째 항목은 앞의 단계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순진리의 목적으로 제시된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의 의미를 교리전체의 종합 귀결 방향에서 설명하고, 대순진리의 가치가 최종적인 완성을 이루는 것으로 그 의의를 밝혀보기로 한다.

## Ⅱ. 대순진리와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

### 1. 천지공사와 지상천국건설

대순진리가 이 땅에 출현한 것은 그리 멀지 않은 역사를 지닌다. 더구나 모든 교리체계가 확립된 시기는 근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놓여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순진리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사상이 발생하기 이전의 역사를 아우르고 모든 기성종교의 한계를 극복 대체하는 방향에서 그 가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말은 대순진리가 발생한 것이 오래지 않은 과거이지만 그 배경은 인류의 역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순진리로 인해 인류에게 새로운 문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와 같이 대순진리가 지닌 방대한 역사성에 착안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절대자의 존재를 신앙하고 나아가 그 궁극적인 가치가 실현되는 세계를 갈망하여야 할 것이다.

대순진리의 목적으로 제시된 것 가운데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은 바로 진리가 실현된 궁극적인 세계를 총체적으로 나타낸 것에 다름 아니다. 이 세계가 어떠한 세계이며, 어떤 의미에서 가치를 지니는가 하는 것은 그 배경에 해당하는 역사를 떠나서는 이해되기 어렵다. 즉 대순진리가 등장하기 이전의 역사와 등장한 이후의 대공사를 앎으로써 인류가 맞이하는 새로운 문명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구천상제께서 이룩하신 천지공사(天地公事)가 위대한 문명의 갈림길에 놓여있음을 주목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대순진리의 목적 또한 천지공사의 대역사(大役事)를 통해 자연스럽게 제시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천지공사는 구한말에 강세하신 구천상제에 의해 9년간 행해진 역사를 일컫는다. 이 역사의 배경은 시대를 한참 거슬러 올라가 인간과 사물이 이 땅에 처음 생겨나게 된 때부터 시작된다. 『전경』에 따르면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공사 1장 3절) 라고 하여 선천세계를 말하고 있다. 선천세계는 곧 천지공사의 대역사가 있기 이전의 우주 시간이며 인류문명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천세계가 '상극(相克)'을 바탕으로 하면서 모든 부작용이 생겨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세상에 원한이 쌓였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서 천지의 위대한 질서가 허트러지고, 모든 천재지변이 생겨나며, 인류문명 또한 전쟁과 기아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으로 치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류문명이 타락하게 된 데는 인류 자신의 오만과 방종이 또한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역시 『전경』에 따르면 인류 문명은 근대에 접어들어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는데 그 발전의 배경에는 동양으로부터 건너간 문명신의 작용이 있었음을 밝힌다. 하지만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교운 1장 9절) 라고 하여 인류가 이룩한 과학문명의 배경에는 심각한 도덕적 모순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인류가 상극에 지배되어 저지른 죄악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인류문명은 스스로 진멸(盡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 심각한 상태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절대절명의 손길을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다.

인류가 처한 진멸의 위기를 좌시하지 않고 구원의 노력을 벌이게 된 것은 인류 자신이 아닌 '신명계(神明界)'의 처사이다. 오히려 인류는 “천하 창생이 진멸할 지경에 닥쳤음에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재리에만 눈이 어두우니…”(교법 1장 1절)라고 하여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신명계에서는 역대 신성(神聖)·불(佛)·보살(菩薩)이라는 분들이 모여서 인류와 신명계의 큰 겁액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니 바로 구천(九天)에 계신 상제께 하소연하여 그 절대적인 권능을 빌리고자 하였던 것이다. 상제는 곧 우주를 지배하는 최고신이며 모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권능의 소유자이다. 신성·불·보살은 역사적으로 상제의 존재를 인류에게 설파하며 그 뜻을 펴고자 했던 종교적 성인(聖人)들을 의미한다. 인류문명이 그나마 윤리 도덕을 배우고 그 맥을 이어 온 것도 모두 성인들에 의해서 가능했다. 기성 종교의 가르침이 성인들의 출현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모든 종교는 그 연원을 지니고 있고, 이는 나아가 더 이상 성인이 출현하지 않는 시점에서 그

맥이 끊어지는 것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신성·불·보살의 하소연은 바로 기성종교의 모든 맥이 끊어져 더 이상 어떤 종교도 인류의 구원을 약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음을 상징하고 있다. 『전경』 교운 2장 26절에 소개된 “전교(傳敎)”의 내용은 이러한 기성종교의 가르침이 그 역사적인 맥을 다하는 과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즉 불교는 석가모니 기원 후 3000년에, 유교는 공자 기원 후 2500년에, 기독교는 예수 기원 후 2000년에 수명을 다한 후 모두 같은 시대에 새로운 진리를 갈구하게 된다. 그것은 곧 모든 신성·불·보살들의 회집(會集)으로 이어지며, 오직 한 분의 절대자의 강림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문명을 창출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된다. 구천상제의 강림은 바로 이러한 신명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구천상제께서는 천(天)·지(地)·인(人) 삼계(三界)를 대순(大巡)하시고, 그 신통자재(神通自在)함으로 인해 인세(人世)에 강림하였으니 구한 말 1871년에 탄강하여 40년간을 주력(周歷)하신 강증산(姜甌山)이 그 분이시다. 인간의 몸을 지닌 상제께서는 천하(天下)대순(大巡)을 통하여 인류와 신명계가 처한 진멸의 위기를 직시하였으며 그 자신이 지닌 위대한 권능으로 인류구원의 대역사를 단행하게 된다. 1901년부터 1909년까지 행해진 천지공사는 상도(常道)를 잃은 천지(天地)도수(度數)를 정리하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運路)를 열어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광구천하(廣救天下)의 대작업인 것이다. 이 천지공사로 인해 수천백년간 쌓이고 맺인 무수(無數)무진(無盡)한 삼계의 모든 원울(冤鬱)을, 무형무적(無形無迹)한 가운데 해방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극단(極端)의 부면(部面)까지 쓰지 않은 곳이 없었다. 『전경』에 기록된 「공사」 편은 그와 같은 역사를 전해주고 있다.

천지공사가 지향하는 이념은 오늘날의 대순진리가 표방하는 종지(宗旨)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의 16자에는 천지공사의 범위와 그 가치실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집약적인 어구인 것이다. 음양합덕은 새로운 세계의 조판(組版)을 나타내고 있으며, 신인조화는 신인간의 탄생을, 해원상생은 새로운 윤리도덕을, 도통진경은 이상세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새로운 우주의 탄

생으로부터 새로운 인간의 출현을, 그리고 새로운 윤리도덕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는 조화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종지로서 확립되기까지에는 50년간 공부종필하신 조정산(趙鼎山) 도주(道主)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천부적으로 상제의 종통을 계승한 도주께서는 지극한 정성과 수도활동으로 무극도(無極道)를 창도(創道)하였으며 상제의 무극대도(無極大道)를 체계적인 교리로 확립하였다. 무극도(無極道)는 ‘아무 것도 없는 도’가 아니라 ‘모든 새로움을 창출할 수 있는 도(道)’이다. 도주께서 세운 교리에는 신앙대상과 종지, 신조, 목적이 있으며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를 현실화할 수 있는 모든 법방(法方)이 담겨 있다. 특히 신조(信條)는 사강령(四綱領)과 삼요체(三要諦)로서 수도의 방법을 명시하면서 그 목적달성을 위한 요건으로 중요시된다. 오늘날 현대종단으로 발전해 온 대순진리회는 이러한 도주의 유법(遺法)을 승신하여 실천 수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대순진리의 교리상 목적으로 제시된 사항 중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은 이렇게 앞서 말한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를 토대로 하고 그 가치실현이 될 것을 기대하는 데서 형성된 개념이다. 지상천국은 천지공사에서 결정된 것처럼 전혀 새로운 후천 문명을 이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세계개벽은 변화된 세계의 가치를 극적으로 묘사한 말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분명하게 기록된 천지공사의 역사를 확인하고 이어서 종지와 신조 목적으로 신앙하는 도인의 수도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목적 달성도 하나의 단계를 지닌다고 보고 그 전 단계에 해당하는 무자기-정신개벽, 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를 통해 그 최종적인 경지를 구가하게 된다.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은 곧 개인의 완성, 사회의 완성, 나아가 세계의 완성을 종합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하겠다.

## 2. 정신개벽과 인간개조를 통한 세계개벽

지상천국건설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그 속에 인간과 자연 그리고 생명계까지도 포함하는 총체적인 도화낙원의 세계가 건설된다는 말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혜택을 누리고 사는 존재는 바로 인간이며, 인간이 없으면 세계 또한 가치가 없다. 상제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일월이 아니

면 빈 꺾데기요. 일월은 지인(知人)이 아니면 허영(虛影)이요. 당요(唐堯)가 일월의 법을 알아내어 백성에게 가르쳤으므로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이치가 비로소 인류에게 주어졌나니라”(교운 1장 30절)고 하셨듯이 후천문명의 주인은 인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천지공사를 현실화하는데 주체가 되어야 할 자는 바로 인간이며 이러한 인간의 거듭남이 그 궁극적 목적인 지상천국 건설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상천국건설이 곧 세계개벽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개벽에 참여하는 인간 또한 개벽을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 목적에서 제시된 항목 가운데 무자기-정신개벽, 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는 지상천국의 세계를 구성하는 인간의 참된 변화를 뜻하고 있다. 개벽은 열 개(開), 열 벽(關)으로서 무한한 새로움이 창조되어 나오는 것이며 무한한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전의 세계와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것이며, 그 새로운 세계가 무한한 풍요로움 속에서 끝없이 발전해 나간다. 구천상제께서 이룩하신 천지공사는 이와 같은 개벽을 주도하였고 오늘날의 인류가 갈망하는 지상천국을 건설코자 하였다. 여기에 모든 인류 중생은 자신의 수행적인 변화를 통해 먼저 세계개벽의 기치를 드높일 필요가 있는데, 앞서 제시한 정신개벽과 인간개조는 그 일차적인 과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정신개벽은 인간 자신이 그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무자기(無自欺)로도 설명되는 정신개벽은 모든 수도의 근본이라고 할수 있다. 무자기를 통하여 도통진경(道通眞境)에 이르게 되며, 그 마음이 항상 세립미진하고 무욕청정한 본심을 지니는 것이 무자기이다. 홀로 있을 때라도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아야 하며 남 또한 속이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 참된 신앙인의 자세를 지니고 모든 천지신명을 외경할 줄 아는 것이다. 신명의 지오지밀(至奧至密)함을 알아 조금도 잘못이 없도록 자신을 단속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도록 하는 것은 무자기의 주요 방안이 된다. 진실된 마음을 지닌 사람은 남 또한 진실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참된 무자기가 되었을 때 곧 정신개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정신개벽은 지극한 도심(道心)을 지니는 것과는 통한다. 도심(道心)이란 오직 공적(公的)인 것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심(私心)과 반대된다. 도

인이 수도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공적인 일이며 구천상제의 유지(遺志)를 끝까지 받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도심(道心)은 진심(眞心)이며 일심(一心)이고 정심(正心)이다. 도(道)는 신도(神道)이며 인위적인 사도(邪道)와 구분된다. 수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신명의 수찰(垂察)이 있음을 명심하여 속임과 거짓이 없는 행동을 해 나가야 한다.

진실한 도심을 지닌 사람은 분명한 주관이 있고 신념이 있다. 그리하여 어떤 유혹이나 겁액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정신개벽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욕청정의 수행을 하고, 지성으로 정심수신(正心修身)하며, 훈회와 수치를 생활하는 것 등은 그 목적달성을 앞당기는 주요방안이 될 수 있다. 그 최종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이다. 진실한 수도의 과정에서 이룩하는 세계개벽에 이처럼 정신개벽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신개벽이 주로 인간의 내적인 정신상태를 개벽시키는 것이라면 인간개조는 한 인간존재의 전인적(全人的)인 변화를 가리키고 있다. 정직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현재의 생활 속에서 언제나 예의바르고 도덕적으로 어긋남이 없을 때 그 인간은 진실로 개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새롭게 개조된 내용은 한마디로 지상신선실현이며 상제의 천지공사로 탄생하는 신인조화(神人調化)된 인간을 말한다. 주지하다시피 천도(天道)와 인사(人事)의 상도(常道)를 바로잡고 끊어진 도의 근원을 되살리는 것이 천지공사의 주된 배경이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후천문명을 개창하고 삼계(三界)를 개벽함으로써 천지공사의 최종목적 달성이 가능하게 된다. 삼계개벽에 있어서 인계(人界)개벽은 곧 인간개조를 말하며 인간을 둘러싼 후천문명을 다스려 나가는 새로운 인간주체의 등장을 뜻한다. 후천선경은 모든 사람이 인존(人尊)이 되어 살아가는 지상 낙원으로서 지상신선이 사는 곳이다. 이러한 신선은 선천의 모든 악습을 폐지하고 오직 선한 윤리도덕으로 도통을 이룬 도통군자에 해당한다. 도통에 대해서 상제께서는 일찍이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교운 1장 41절)라고 하여 자기 완성이 있음을 말씀하셨다. 여기에는 자기 고난의 과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신명의 수찰과 응합(應合)이 놓여있다. 그렇게 달성한 인간개조에는 그 구체적인 보답으



로서 불로불사와 무병장수를 누리며, 시방세계에 두루 통달한 지혜를 지니며, 임의로 용력(用力)을 발휘해서 모든 일을 막힘 없이 자유자재로 행할 수도 있다. 즉 지상신선을 실현함으로서 그 육체적 조건까지도 변화시키며 자신의 모든 소원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신개벽과 인간개조의 과정이 바로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으로 이어지며 서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로 구성된다. 지상천국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천·지·인 삼계를 들고 인간은 그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아 후천을 인존시대(人尊時代)라고도 한다. 인존시대의 중심이 되는 인간이 먼저 그 자신의 개벽을 이루지 않고서는 지상천국이 건설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신개벽과 인간개조는 인간 자신을 기준으로 볼 때 대자적(對自的)인 측면의 목적이 될 것이고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은 대타적(對他的)인 측면의 목적이 된다. 대자적인 것과 대타적인 것은 인간과 세계의 내외합일(內外合一) 표리일체(表裏一體)의 관계와도 같다. 인간과 세계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그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며 나아가 자연만물과의 조화를 이루어 세계개벽이라는 최고가치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 3. 후천선경으로서의 지상천국

천지공사가 실현되고 지상천국 건설을 달성한다는 것은 대순진리가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적이다. 이 때 지상천국을 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후천선경(後天仙境)이다. 후천선경은 곧 지상천국과 동의어이면서 그것이 건설될 수 있었던 배경과 이념을 담고 있다. 따라서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이라는 대순진리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후천선경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천선경이라고 할 때의 후천은 선천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대순진리의 선포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문명세계이다. 주지하다시피 선천은 대순진리를 탄생시킨 배경이 되는 세계이며 상극과 원한으로 점철되었다. 이러한 선천 세계를 개조시키기 위해서 신명계로부터 결단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절대권능의 소유자인 구천상제께서 강세하게 되었던 것이다. 상제께서는 인세(人世)에서 9년간의 천지공사를 통해 유일무이한 진리를 선포하시고 다시 천상

계(天上界)의 보화천존(普化天尊) 제위(帝位)에 오르셨으므로 그 유지(遺志)를 통하여 후천선경의 참된 의미를 살필 수가 있다.

상제께서 선포하신 진리에 따르면 후천선경은 다음과 같이 건설되어 진다.

그러므로 상제께서 오셔서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 선경을 열어놓으시고 신도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후에 인사를 조화하니 만민이 상제를 하느님으로 추앙하는 바가 되었도다. (예시 9절)

즉 선천의 어그러진 천지도수가 정리되고 인간계와 신명계에 누적된 원한을 해소하여 오직 상생으로서만 살아가는 세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선천에서 인류가 겪어야 했던 문제는 바로 '상극'이라고 하는 원리에 지배된 것으로서 모든 악습과 재난이었다. 자연의 기후가 고르지 못하여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전쟁과 기아로 인해 사망하거나 불평등과 차별로 인해 원한이 쌓이기도 하였다. 지혜가 밝지 못해 번뇌가 생겨나고, 늙거나 병들고 죽는 과정을 밟아야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사회는 천리(天理)를 흔들고 신도(神道)를 무시하여 도(道)의 근원을 끊어지게 하였으므로 상제의 천지공사가 행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상제께서는 후천을 여는 공사를 하시면서 이러한 선천의 모든 악습을 없애고 전쟁이나 굶주림이 없는 도화낙원의 세계를 예비하였다. 여기에는 신도(神道)를 조화하여 만고불변의 도수를 확정하고 모든 인간이 신선의 경지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 지혜가 밝아서 모든 번뇌가 없고 시방세계에 통달하며, 불로불사하여 빈부의 차별이 없고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 세계는 선천과 대비해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개벽된 세계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세계에 실재로 가서 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상제의 천지공사로 인해서이다.

후천선경은 이와 같이 상제의 천지공사를 통해 건설되는 낙원으로서 그 최고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지상천국으로 불리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상신선이 되어 살아가는 인간과 무자기 정신개벽이 되어 생활하는

모습은 후천선경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라 하겠다.

후천선경으로서의 지상천국은 또한 도통진경의 세계로도 묘사할 수 있다. 도통진경은 대순진리의 종지로 표방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몇가지 이념을 담고 있다. 도통진경에 관한 글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이상적 인간과 세계 일가의 시대, 물질적 풍요와 자연환경의 이상세계, 종교와 이념의 통일세계가 그것이다. 이상적 인간은 인존(人尊)을 이룬 신 인간상을 뜻하며,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한 집안처럼 화목하게 지내는 화평의 세계가 도래하게 됨을 말한다. 물질적 풍요를 이룬다 함은 과학문명이 천상(天上)문명에 가깝게 발전됨으로 거기서 주어지는 혜택과 수단을 통해 의식주의 생활이 무한하게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환경 또한 인간에게 어떠한 재해도 만들어 내지 않고 오직 인간에게 유리한 쪽으로 온화하게 갖추어짐으로써 그 풍요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종교와 이념도 후천세계에서는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어떤 다양한 진리도 근원적으로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으므로 상제의 천지공사로 인해 건설되는 후천에서는 종교간의 대립도 있을 수 없다. 그리하여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대통합의 시대를 그린다면 이는 후천선경의 건설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순진리의 목적에 해당하는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은 후천선경에 관한 설명에 의해서 보다 자세히 파악될 수 있음을 보았다. 지상천국은 대순진리가 지향하는 총체적인 세계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그것이 지닌 의의는 교리전체의 유기적인 통합과 종합적인 지향에 의해서 그 본래의 의미가 드러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지상천국 건설의 목적이 교리전체를 종합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지니는 몇가지 의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 Ⅲ.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의 의의

#### 1. 천지공사의 완결

지상천국건설이 지니는 교리적인 의의를 살펴보면 먼저 구천상제께서 행하신 대역사로서의 천지공사를 완결짓는다는데 있다. 총 9년간에 걸쳐 행해진 천지공사는 이후 조정산 도주와 박우당 도전의 종교활동이 더해지면서 그 구체적인 실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오늘날의 종단에서 확정하고 있는 교리개요에는 이와 같은 천지공사의 주된 이념과 실천을 위한 신조 그리고 최종적인 수행목적들을 제시하여 그 체계적인 진리를 표방하고 있다. 여기에 지상천국건설이 그 정점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글을 살펴보자.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대순진리를 종지로 하여 성·경·신의 삼법언(三法言)으로 수도의 요체를 삼고 안심·안신 이율령(二律令)으로 수행의 훈전(訓典)을 삼아 윤리도덕을 숭상하고 무자기를 근본으로 하여 인간개조와 정신개벽으로 포덕천하(布德天下)·구제창생(救濟蒼生)·보국안민(輔國安民)·지상천국건설(地上天國建設)을 이룩한다.  
(『대순진리회요람』 p.14)

위의 교리개요에 나타난 내용은 크게 나누어 종지와 신조,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지는 구천상제께서 이룩하신 천지공사의 주된 이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조는 그 진리를 수행하기 위한 실천방법을 말하며, 목적은 실천수행을 통해 도달하는 궁극적인 경지를 뜻한다. 이 가운데 목적에서 제시된 사항 중 정신개벽과 인간개조는 지상천국건설을 위한 선행과제로 볼 수 있으며 다시 이를 수단으로 하여 포덕천하·구제창생·보국안민·지상천국건설을 이룬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포덕천하·구제창생·보국안민은 지상천국건설을 위한 과정에 해당한다. 궁극적으로는 지상천국건설이 목적이 되며 모든 진리와 실천적 과제도 여기에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상천국건설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대순진리의 교리전체가 지향하는 최종적인 과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상천국건설을 이룸으로써 천지공사를 완결짓는다는 것은 천지공사의 역

사적 성격상 일컬어질 수 있는 말이다. 천지공사는 강세하신 구천상제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완결되기 위해서는 후대의 종교활동이 이어져야만 했다. 즉 조정산 도주께서 구천상제의 계시를 받으심으로서 종통을 세우셨다. 도주님께서서는 진주(眞主: 15세)로 봉천명(奉天命)하시고 23세시에 득도(得道)하여 이후 종단 무극도(無極道)를 창도함으로써 수도를 위한 모든 법방을 정립하였다. 이에 박우당 도전님께서서는 도주의 유명(遺命)을 직접 받아 종통을 계승하였고 현대 종단에서 그 법방을 실천하여 종단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연원(淵源)은 바꿀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일한 근간이 되는 것이다. 천지공사에서 예비한 후천선경의 이상적인 모습은 모두 이 연원을 통해서 달성된다. 따라서 현실의 지상천국 건설을 이룩한다는 것은 본 도의 연원을 통해 이어져 온 수도활동과 지속적인 정성의 과정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인간의 정신이 개벽되고 전인적인 인간의 개조를 이룩하며 나아가 세계가 개벽된 이상적인 모습을 달성할 때 지상천국은 건설되고, 이는 결국 상제의 천지공사가 완결되어 그 빛나는 세계를 맞이함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 2. 인존시대의 도래

지상천국건설의 목적에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인존시대(人尊時代)가 도래(到來)한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인존(人尊)에 관한 내용은 익히 대순진리의 교리 전반에 걸쳐 언급이 되었던 것이지만, 되새겨본다면 무엇보다도 상제의 위대한 선언에 근거하고 있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교법 2장 56절) 여기서 명시된 인존시대는 곧 후천선경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귀한 대접을 받고 또한 그 지고한 혜택을 누리는 세상을 말한다. 인간의 존재가 그만큼 위대하다는데 있어서 후천선경은 인간을 중심으로 운용되어지는 세계임을 알 수 있다.

상제께서 이렇게 인존시대를 강조한 이유는 바로 천지공사를 완결짓는 주역(主役)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상제께서는 구천대원조화주신으로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마침내 인세(人世)에 탄강하여 천지공사를 행함으로써 삼계공사

(三界公事)를 최종적으로 확정지었다. 당시에 인간 상제의 몸으로 바라본 이 세계는 그 어느 때 보다는 상제의 권능을 필요로 하였다. 선천에서의 모든 원한과 겹재가 발생한 것도 인간의 잘못 때문이며 상도(常道)가 어겨지고 천리(天理)를 어그러뜨린 것도 인간에 의해서이다.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신령스러운 존재로 태어난 인간이 그 위상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을 때에는 천지에 커다란 분란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하지만 천지(天地)일월(日月)도 인간이 없으면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하였듯이 후천문명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그 주역이 되어야하는 존재는 바로 인간이었던 것이다.

일이 마땅히 왕성해지는 것은 천지에 달려있는 것이요 반드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천지도 없다. 그러므로 천지가 사람을 낳고 사람을 쓰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천지가 사람을 쓰는 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찌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는가.(事之當旺在於天地 必不在人 然無人無天地 故天地生人 用人 以人生 不參於天地用人之時 何可曰人生乎; 교법 3장 47절)

상제께서는 앞으로의 인간에게 새로운 정신과 육체를 부여함으로써 지상천국건설의 진정한 주인으로 나서게 하였다. 즉 후천선경이 지상천국이므로 이 때 지상천국은 또한 도통진경이다. 도통진경은 도통군자가 아니면 다스려질 수가 없다. 상제께서는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후천의 도통을 받게 하여 지상천국이 된 후천을 다스려나갈 수 있게 하였다. 일만이천 도통군자(예시 45절)로 창성된 후천문명은 저마다 닦은 바대로의 도통을 누리면서 무한한 혜택이 뿜어 나오는 지상천국의 영화를 누리게 한 것이다.

지상천국건설이 되어 누리는 혜택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전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가히 그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보기에 충분하다. 천국의 모형을 그대로 본 딴 것처럼 후천은 과학문명이 놀라울 정도로 발달되어 인류는 극치의 편의를 얻으며, 불로불사의 장생을 얻고 하늘을 자유롭게 오르내리며, 상서가 무르녹고 주루보각에서 살며, 모든 신명들이 인간에게 옷과 밥을 마련해 주는 그런 세상이다. 실로 인간을 위해 지어진 세계가 바로 후천이며 이 속에 사는 인간이야 말로 천존·지존보다 큰 인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상천국건설은 바로 진정한 인존시대의

도래를 말하고 있으며 또한 인존에 의해 주도되어지는 개벽된 세계를 말하고 있다.

### 3. 대순종지의 실현

지상천국건설의 목적달성은 이념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순진리의 종지가 표방하는 가치를 그대로 실현한 것에 또한 의의를 둘 수 있다. 종지는 그 종단의 이념을 가장 압축하여 표현한 것으로 대순진리회 종단에서는 총 16자로 이루어져 있다. 음양합덕은 후천을 구성하는 원리로서 천지조판을 뜻한다고 보았으며, 신인조화는 신인간과 새로운 도덕기반으로 보았고, 해원상생은 화평을 누리는 사회생활의 방식이며, 도통진경은 그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이상세계를 뜻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종지의 이념이 주창되기까지에는 무극도(無極道)를 창도하신 도주의 혜안이 있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천지공사가 지향하는 목적의식이 이러한 종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본다. 즉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의 목적은 바로 대순종지의 실현이며 종지는 곧 천지공사의 주된 이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음양합덕에 근거하여 바라본 천지공사는 한마디로 정음(正陰)정양(正陽)의 공사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물은 음양 아닌 것이 없다. 음과 양은 서로 상보(相補)적이고 상합(相合)적으로 존재한다. 하나의 사물이 제대로 역할을 할려면 반드시 보완해주는 상대를 필요로 하며 그 서로의 덕을 합하였을 때만이 가장 빛나는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 남녀관계, 천지관계, 물과 불의 관계 등등 자연의 서로 대대적(對待的)인 사물들은 모두 음양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음양이 서로의 덕을 합하여 극치의 혜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정음정양이다. 말하자면 음(陰)도 바른 음, 양(陽)도 바른 양이 되어야 한다. 어떤 결함이 없는 상대가 서로 합덕(合德)이 되어야만 정당한 혜택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후천에는 모든 사물이 정음정양이 되어서 서로의 덕을 합하여 무한한 혜택을 만들어 내므로 상제께서는 천지공사를 통해 먼저 정음정양의 도수(度數)를 정하신 것이며 이로써 모든 세계구조를 짜신 것이다.

신인조화에서 강조되는 것은 확고한 윤리도덕을 몸에 지닌 새로운 인간상

의 탄생이다. 천지공사가 행해진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극에 지배된 인간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천리를 흔들고 신도를 무시하였다. 마침내 도의 근원까지 끊어지게 함으로 신성·불·보살의 청원에 의해 상제께서 강림하였던 것이다. 이어서 상제의 천지공사에서는 무도(無道)한 인간의 악습을 진단하고 새로운 유도(有道)의 세상을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방법론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신도(神道)에 의한 신인조화(神人調化)였다. 조(調)는 고르게 섞는다는 뜻이며 화(化)는 완전히 새롭게 바뀐 모습을 뜻한다. 상제께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닦은 바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게 하고, 각자의 기국에 맞추어 도통을 주신다고 하였다. 이로써 인간은 언제나 신명과 합일되어 조금의 잘못도 저지를 수 없는 무한한 밝은 세상을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그렇게 신인조화된 인간이 사회생활을 통하여 언제나 상생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선천에서 인간이 저지른 해악은 모두 원(冤)이 쌓인 결과이다. 그 원은 신명계에까지 사무쳐서 더욱 큰 재난을 불러들였으므로 상제께서는 신도(神道)로부터 원을 푸는 공사를 집행하였다. 해원이 됨으로써 상생이 되고 상생이 됨으로써 더 이상 원이 맺히지 않는 진정한 지상천국이 건설되는 것이다. 천지공사에서 위주로 한 해원은 이렇게 지상천국건설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었고, 나아가 상생은 영원한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절대이념이 되었던 것이다.

도통진경은 천지공사로 인해 맞이하는 후천세계가 '도통'이라는 경지에 의해 표현되는 이상세계임을 나타낸 말이다. 온화한 자연의 질서 아래 과학문명은 극치의 모습을 띠고 있고 모든 나라는 하나의 지구촌 아래 일가(一家)를 이루며 인간의 지혜가 시방에 통달해서 막힘이 없는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상제의 천지공사에서 예비한 도통은 비단 인간의 정신적 경지에만 그치지 않고 전사회적이고 전우주적인 면으로 확대된다. 지상천국이라는 말 또한 지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라 볼 때 하나의 도통에서 천상과 지하가 결합되는 세계를 뜻하고 있다. 도통진경은 천지공사의 목적과 부합되는 개념으로 궁극적으로는 지상천국건설과 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종지는 천지공사의 주된



이념으로 일컬어지며, 그 이념이 온전히 실현된 세계를 우리는 지상천국 또는 세계개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 IV. 맺음말

이상으로 본고의 주제인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에 대한 이해를 서술해보았다. 대순진리의 교리개요를 하나씩 살펴오면서 그 하나 하나의 개념이 담고 있는 의미를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본고에서 다루었던 주제는 진리의 가장 최종적인 도달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교리를 구성하는 항목 전체를 종합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만큼 방대한 주제임에 틀림없지만 앞선 논문들을 종합하는 방향에서 그 대단(大段)을 살펴보았다. 필자는 그 핵심이 되는 사항으로 먼저 천지공사라고 하는 대역사를 들어서 모든 이론의 근거로 삼았다. 그리고 세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대순진리의 목적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인간과 사회, 세계전체의 모습으로 그 이념이 확대된 것임을 나타내었다. 이어서 지상천국의 참된 모습을 후천선경의 개념과 동일시하여 봄으로써 그 원리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지상천국건설의 목적이 지니는 교리상의 의의를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밝혔으니 천지공사의 완결과 참된 인존시대의 도래, 대순종지의 실현이 그것이다.

목적은 언제나 행위를 예정하고 그 행위는 또한 의지를 수반한다. 대순진리의 목적에서 제시된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은 진리를 수행하는 자의 정성 어린 실천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대순하신 상제의 유지를 받들고자 하는 수도인들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한다. 그리하여 수도의 목적이 달성되는 날 우리 인류에게는 가장 값진 소원이 성취됨을 볼 수 있을 것이다.